평화와 화합의 불꽃…앱으로도 점화

태마로 본 AG | 성화의 모든것

1955년 전국체전 강화도 참성단서 첫 채화
인천AG은 참성단 성화와 뉴델리 성화 합쳐
무게 980g 성화봉…두루미 날갯짓서 착안
스마트폰 성화 점화 '스마트 토치' 등장도

장애인국가대표 수영선수로 '로봇다리'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김세진(앞줄 가운데)이 18일 오후 인천시내에서 성화를 봉송하고 있다. 인천 | 뉴시스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종합스포츠대회에서 성화는 하나의 상징물이다. 성화봉송은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1952년 헬싱키올림픽부터 성화봉송을 의무화하면서 올림픽 개·폐회식의 메인 이벤트가 됐다. 국내서는 1955년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때 처음으로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서 채화한 성화를 봉송했다. 1955년 첫 성화채화를 시작으로 전국체전 성화는 매년 참성단에서 채화하고 있다.

●한국 성화의 역사와 함께한 참성단

전국체전 성화가 매년 채화되면서 참성단은 한국스포츠의 성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됐다. 참성단이 국내 첫 채화장소로 낙점된 것은 단군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성화채화는 모두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한 성화를 사용한 국제대회는 2005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 그리고 이번 2014인천아시안게임이다. 과거 1986서울아시안게임 성화는 경주 화랑교육원, 1988서울올림픽 성화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화됐다. 2002부산아시안게임 때는 남·북한이 각각 한라산과 백두산에서 동시에 채화했다.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참성단에서 채화한 성화는 8월 13일 아시안게임 제1회 개최지인 인도 뉴델리국립경기장에 보관된 성화불씨와 합쳐졌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를 위해 8월 9일 인도에서 제1회 대회 성화를 채화해왔다. 참성단과 뉴델리국립경기장에서 각각 채화해온 두 성화는 하나로 합쳐진 뒤 인천종합예술회관을 출발해 백령도, 제주도, 울릉도 등을 거치면서 전국 70개 시·군·구를 돌았다.

이번 인천아시안게임 성화봉은 길이 69cm, 무게 980g이며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졌다. 디자인은 인천의 시조(市鳥)인 두루미가 날갯짓을 하는 순간에서 착안했다. 두루미의 날갯짓에 의한 바람으로 아시아에 평화와 화합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성화는 봉송 기간 동안 릴레이 주자들에 의해 옮겨지지만, 24시간 내내 이뤄지진 않는다. 봉송이 진행되지 않을 때 성화는 참성단의 모양을 본뜬 안전램프에 보관된다.

●스포츠팬과 함께하는 '스마트 토치'

인터넷 발달과 2010년 이후 스마트폰 사용자 급증에 따라 아시안게임을 즐기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약 3년 전부터 SNS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2012런던올림픽은 SNS 활용이 다양하게 이뤄지면서 '최초의 소셜림픽'이란 수식어를 얻었다. 인천 조직위원회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으로 구성된 11개의 SNS 채널을 구축하는 등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중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토치'는 인천 조직위원회의 야심작이다. '스마트 토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화를 점화하고 이를 전달하는 것으로, 일반인들도 간접적으로 손쉽게 성화봉송에 참여할 수 있어 호응을 얻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성화 점화자는 한류스타 이영애 급부상

2014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기간 내내 인천의 밤하늘을 밝힐 성화의 점화자는 누가 될까.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점화자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18일 배우 이영애(43·사진)가 점화자로 급부상했다.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가 18일 배포한 개회식 해설자료 때문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점화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고, 아시아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은 인물이다. "중국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등 나눔과 봉사를 통해 아시아의 화합을 이바지했다"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이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이영애라는 관측이다.

이영애는 드라마 '대장금'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몰이를 한 한류 스타다. 또 기부금을 통해 중국에 소학교를 설립했고, 최근 대만 아동의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선행을 통해 아시아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고 있다.

역대 국내서 열린 아시안게임 성화 점화자는 모두 운동선수였다. 1986년 서울대회에선 당시 한국육상의 최고 스타 장재근이 주인공이었다. 2002년 부산대회 때는 남한 하형주와 북한 계순희가 동시에 점화자로 나섰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성화 점화자는 현역 또는 은퇴한 운동선수 중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가 나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개회식에선 이승엽(야구), 박인비(골프), 이규혁(스피드스케이팅), 박찬숙(농구), 이형택(테니스) 등이 성화봉송자로 등장한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김남훈 'AG 수능' 만점샷 "이제는 금메달만 남았다"

남자골프 에이스…3회연속 전종목 석권 자신

"이제 남은 목표는 딱 하나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 꼭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

2014인천아시안게임 남자골프대표 김남훈(20·성균관대2·사진)이 다부진 포부를 밝히며 금메달을 정조준했다.

김남훈은 아시안게임 3회 연속 전 종목 석권을 노리는 남자골프대표팀의 에이스다. 무엇보다 전 종목 석권을 위해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개인전에서 그의 활약이 절실하다. 남자골프대표팀은 김남훈과 함께 공태현(20·호남대), 김영웅(16·함평골프고), 염은호(17·신성고)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분위기는 좋다. 김남훈은 치열했던 아시안게임대표 선발전을 1위로 통과할 만큼 안정된 실력을 자랑한다. 또 최근에는 아시안게임 개막을 2주일 앞두고 열렸던 '허정구배 제61회 한국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정상에 오르며 물오른 샷 감각을 뽐냈다. 이 우승으로 국내서 열리는 메이저급 아마추어대회(송암배·호심배·익성배)를 모두 석권해 자신감이 더 높아졌다.

모의고사를 모두 끝낸 김남훈은 금메달 사냥을 위해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대회가 열리는 인천 드림파크 골프장에서 하루 7~8시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목표인 개인전 금메달 사냥에도 이상이 없음을 자신했다. 그는 "국내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인 만큼 부담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금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했고 자신도 있다. 준비한대로 실력을 발휘한다면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대만, 중국, 인도 등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안심할 수는 없다. 또 대회가 열리는 드림파크 골프장의 코스가 길지 않고 난도가 높지 않아 예상 밖의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김남훈은 금메달 사냥을 위한 확실한 전략을 세워뒀다. 그는 "코스가 짧은 편이어서 많은 버디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또 기회가 왔을 때 최대한 많은 타수를 줄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골프는 아시안게임에서 강세를 보였다. 2006년 도하대회를 시작으로 2010년 광저우대회까지 2회 연속 전 종목(남녀개인·단체)을 석권하며 8개의 금메달을 휩쓸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